

문화일보 문화

<최영창 기자의 역사속으로>

사진 속 덕혜옹주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최영창기자 ycchoi@munhwa.com

올해 들어 세간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역사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1912~1989)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출간된 소설 '덕혜옹주'가 각종 베스트셀러 순위 정상에 올라있는 것을 비롯, 단편적이거나 덕혜옹주와 관련된 기록도 일부 발굴됐지요. 사실 지난 2월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한 영친왕 부처 관련 일기·사진 등 희귀자료 가운데 관심을 끈 것 중 하나가 덕혜옹주·소 다케유키(宗武志·1908~1985) 부부가 보낸 문안 엽서였습니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아 연도를 알 수 없던 엽서에는 일문으로 영친왕 가족의 안부를 묻고 '9월1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다케유키·덕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영친왕과 덕혜옹주는 모두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교육을 받고 일본 황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하 대한제국의 황실이 겪은 비운의 상징이란 점에서는 똑같지만 광복 후 남편인 다케유키와 이혼하고 외동딸을 잃는 등 77년의 생애 중 60여 년을 정신병 속에 산 덕혜옹주의 삶이 훨씬 더 비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쓰시마(對馬)번의 번주(藩主)였던 소 가문에 양자로 입적한 덕혜옹주의 남편 다케유키는 혈연상으로 다이쇼(大正) 천황비인 데이메이(貞明) 황후의 고종사촌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그는 덕혜옹주와 정략결혼한 뒤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학대하고 일방적으로 이혼통보를 한 파렴치한 정도로 알려져 있지요.

지난 2008년 국내에 번역·소개된 일본 여성사 연구가 혼마 야스코(本馬恭子)의 평전 '덕혜옹주'는 이 같은 우리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략결혼이었지만 둘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었지요. 이와 관련, 덕혜옹주 부부의 엽서를 공개한 정계옥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도 두 사람 사이가 알려진 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보이는 덕혜옹주의 해맑은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펴내는 반연간지 '일본비평' 최근호(2호)에도 덕혜옹주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실려있습니다. 권숙인(인류학) 서울대 교수가 발굴한 '빨간 벽돌의 우리 배움터:경성 히노데(日出)소학교 백년지'가 바로 그것이지요. 덕혜옹주가 1925년 일본 도쿄(東京)의 가쿠슈인(學習院)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만 4년간 다녔던 히노데소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1989년 펴낸 기념회지에서 당시 동창생들은 모두 덕혜옹주를 '키가 크고 얼굴이 희며 동요를 잘 지었던 분'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덕혜옹주에 관한 사실과 각종 기록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객관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ycchoi@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